



맨부커상 수상 이후 24일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한강 작가가 수상작 '채식주의자'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예전처럼, 제 방에 숨어서 글만 쓰고 싶어요”

맨부커상 한강 기자회견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수상 기쁨보다 ‘이상하다’ 느낌 한국문학 작품 많이 읽어주길” 신작 ‘흰’ 발간 기념 전시회도

“맨부커상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많이 기뻐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1주일이 지나갔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24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강은 이날 수상 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만나 그동안의 감회와 앞으로의 창작 계획 등을 밝혔다.

작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검색 원피스 차림의 한 작가가 기자간담회 장소인 흥대 입구 인근 카페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한강은 먼저 “영국 출판사 편집자와 신

작 출간을 상의하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수상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은 “수상 당시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책을 쓴 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며 “11년 전 소설을 많은 시간이 건너서 이렇게 먼 곳에서 상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기쁨보다도 ‘아 이상하다’ 이런 정도였다”고 답답하게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수상 이후 전과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답답하게 답했다. 한 작가는 “잘 모르겠다. 여기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바라건대 아무 일 없이 예전처럼 잘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끝나면 열른 돌아가 지금 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며 “최대한 빨리 제 방에 숨어서 글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상 이후 책을 구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소설(‘채식주의자’)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작품이라, 소설을 질문으로 읽어주셨으면 한다. 11년 전 던진 질

문으로부터 저는 계속 나아가고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새 독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작가는 “바라는 바가 있다면 수상작 소설만 읽으시지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작가들이 많은데 묵묵히 방에서 자신의 글을 쓰시는 분들의 훌륭한 작품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강이 25일 출간하는 신작 소설 ‘흰’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책은 모두 65편의 짧은 글로 이뤄져 있으며 하나의 주제의식과 이야기를 지닌 소설이다. 동시에 각각의 글이 한 편의 시로 읽어도 무방할 만큼 시적 서정성과 완결성을 지녔다. (한강은 소설가로 등단하기 전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로 먼저 등단했다.)

한강은 몇 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수개월간 머물렀다는 말로 소설 ‘흰’의 모티브를 이야기했다. ‘흰’은 산문과 운문이 교묘히 혼합된 형태로, 한강의 작가로서의 역량과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폭격으로 파괴됐다 재건된 그 도시를

많은 사람을 떠올렸고, 그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떠난, 말하자면 저의 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그 사람에게 삶의 어느 부분을 주고 싶다면 그건 아마 흰 것들이라고, 더럽힐려야 더럽힐 수 없는 투명함이나 생명, 빛, 밝은 눈부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작가가 그동안 인간의 폭력과 어둠에 전착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생명과 빛 그리고 아름다움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한강은 미디어 아티스트 차미혜 작가와 함께 ‘소실·점’이라는 제목의 전시도 연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가 ‘흰’을 주제로 표현한 4개의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준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스미스에 대해 “정확하게 감정과 톤을 그대로 번역해 읽기 맘이 통했다고 느꼈고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했다. 이어 “좋은 번역가와 외국 편집자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화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 ‘채식주의자’ 해외서도 인기...27개국 판권 계약 완료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의 인기가 국내 서점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채식주의자’는 교보문고에서 만 권이 넘게 팔렸고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도 같은 기간 총 9200여 권(종이책

과 전자책 합산)이 팔렸다.

‘채식주의자’는 세계 주요 국가에 판권이 팔릴 만큼 세계 문학출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 유럽, 아랍까지 27개 나라에 판권 수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판매 또한 급증하고 있다. 맨부커상이 발표된 영국에서는 수만 권이 추가 제작됐고 세계 주요 국가에 판권이 팔렸다.

이 같은 열풍은 해외서점사이트 베스트셀러에도 영향을 미쳤다. ‘채식주의자’는 영국 아마존닷컴에서 수상 바로 다음날(19일 오전 기준) 베스트셀러 20위권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아마존닷컴에서는

50위권까지 올랐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영국과 미국 출판사는 추가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 영국과 미국에 번역 출간된 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Human Acts)’도 유럽권을 중심으로 현재 10개 나라에 판권이 팔린 상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율성 삶 자취따라 매일 음악회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10월까지 문화전당 등에서 총 10차례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음악을 매일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016 정율성음악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정율성 선생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첫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내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에서 열린다.

광주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이 음악회는 오는 10월까지 매일 넷째 주 토요일 총 10회(하반기에는 월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율성 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송일고, 히딩크 호텔 앞마당(정율성 생가를 비롯해 금남공원, 유스퀘어 야외무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행사가 열린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계 조선대 명예교수, 김선희 한세대 외래교수를 비롯해 송태완 그랜드오페라단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공연단체는 칸타빌레 중창단, 광주음악협회 챔버앙상블, CNS금관5중주단, 뮤즈 싱어스, 김윤속 재즈트리오 등이다.

문화재단은 음악회를 광주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 이벤트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5일 공연은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7월 23일에는



첫 공연 28일 호남신학대

‘광주관광객벤치뷰로 중국관광객 유치사업’ 행사와 연계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는 정율성 선생의 가곡 및 작품을 모티브로 작·편곡된 음악을 시민에게 배달하는 새로운 음악회”라며 “특히 광주성악콩쿠르 수상자를 비롯해 지역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미게 돼 지역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정율성음악축제는 오는 6월28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는 광주시·광저우시 교류 20주년 기념공연을 비롯해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오는 8월 열리는 광주성악콩쿠르 등 3개 이벤트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정율성(1914~1976) 선생은 1933년 항일운동을 위해 형을 따라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1939년)’ 등을 작곡했다. 근·현대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 일정과 출연진에 대한 정보는 정율성 음악축제 홈페이지(jysfestival.kr)에 있다. 문의 062-670-7466~7.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은행 수목화 공모전 연다

하반기 개최... 27일 문화전당서 학술포럼 개최

광주은행이 기업 메세나 활동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 수목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27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강의실에서 수목화 공모전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이선욱 전남대 교수가 주제 ‘남도 화맥의 어제와 오늘’을, 하계훈 단국대 겸임교수가 ‘수목화 공모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를 발표한다.

또 기계계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이 참여해 ‘현행 공모전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공모전 요건’, 김상철 동덕여대 회화과 교수가 ‘공모대상 및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과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으로 수목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